

펼쳐지는 옹골찬 패기

세찬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황량한 용현 벌판 위에 사천여 근로자들의 정성을 모아 인항고등학교를 세운 지 어언 5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개척자의 패기를 지닌 1, 2회 졸업생들이 학교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 놓았고, 새롭고 활기찬 후배 재학생 여러분들이 더욱 빛나는 전통을 세우려 옹골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한 부분인 '인항'제3호 발간을 바라보며 나는 학생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찬탄을 보냅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인항의 발전을 선도하고 기록하며 사랑받는 교지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힘차게 생동하는 젊은 인항! 성실하게 노력하는 인항인! 나는 학생 여러분의 이러한 모습을 가슴 뿌듯하게 여기며 인항의 주역인 학생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바램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실'입니다. 성실한 인항인이 됩시다. 성실한 사람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환영과 존경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의 귀천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존경을 받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땀흘리지 않으면서 소비와 향락에만 몰두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떼땀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쌓은 그릇된 일부 기성 세대들에 의해 청소년들과 꿈과 정열마저 오염되어가는 듯합니다. 그러나 사회가 아무리 혼탁해지더라도 묵묵히 맡은 바 일에 열중하는 성실한 사람들에 의해 사회는 유지되고 발전되어 갑니다. 우리 인항인들은 이같이 사회의 이익을 담당하고 공헌하는 성실한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장 한성완

둘째, '봉사'입니다.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인정이 메마른 듯한 요즈음의 세태를 바라볼 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봉사 정신'입니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조건없는 사랑을 전제합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숭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봉사 정신'은 중국에는 이에 고마움과 감동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나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항상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봉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여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당부하고자 하는 바는 '효행'입니다. '효'는 예로부터 만가지 일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나를 낳아 주시고 키워 주신 부모님들은 나의 뿌리입니다. 뿌리없는 나무는 살지 못합니다. 나의 부모님을 소홀히 대하는 것은 곧 나의 근본, 뿌리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튼튼히 세운 다음에야 다른 큰일도 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인항인들은 자신의 근본부터 착실히 다져 나가는 '효행'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상에서 당부한 세 가지는 모두 우리 '인항고등학교'의 교훈입니다.

인항의 주역인 학생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교훈을 항상 마음 속 깊이 간직하고, 어느 사회에서나 사랑받고 존경받는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굳게 믿으며 기대하겠습니다.